

## 속죄의 날

**핵심 구절:** "일곱째 달 열째 날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은 당신을 위해 속죄하여 당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너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레위기 16:29-30**

**선택한 성구:**

**레위기 16:2-9, 11-19, 27-34**

오늘의 공과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연례 속죄일에 행해진 성막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중요한 예배는 유대 종교력의 일곱 번째 달 열흘째 되는 날에 거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막의 가장 안쪽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일 년 중 가장 엄숙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이 특별한 날의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 대제사장 아론은 평소 입던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 )이 아닌 흰 세마포로 만든 제사 의복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2-39; 레위기 16:4

아론은 속죄 제물을 위해 수송아지와 염소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송아지는 아론이 직접 준비하여 성막 뜰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여야 했습니다. 수송아지의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수송아지는 지방이 많았기 때문에 맹렬하게 타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레위기 16:3, 5-6, 25

그런 다음 아론은 향로에 번제단의 불에서 가져온 불타는 석탄을 채우고 달콤한 향과 함께 성막의 첫 번째 칸인 지성소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향로를

금제단 위에 놓고 그 위에 향을 뿌려서 달콤한 향의 연기를 내면 두 번째 휘장을 넘어 지성소까지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꼼꼼하게 수행한 아론은 지성소에 안전하게 들어가 마지막 속죄 행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속죄소 위와 앞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12-14절

성막 바깥, 성막을 둘러싼 진영 너머에는 또 다른 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황소의 가죽, 살, 배설물 등 더러운 부분을 태워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고, 성막 뜰을 둘러싼 휘장과 지성소의 폐쇄적인 성격으로 가려진 속죄일의 다른 희생 의식과는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송아지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27절

다음으로 속죄 제물로 염소를 바쳤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염소를 잡아 성막 문에서

주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주님의 염소는 성막 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지성소로 가져와서 수송아지의 피와 같은 방식으로 뿌렸습니다. 그 가축과 살과 배설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습니다(15절과 27절).

바울은 "이런 일들이 그들(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그들은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가올 좋은 것들"과 "더 나은 제사"에 대한 "그림자, 희미한 미리 보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11; 히브리서 10:1; 9:23